

## 국가 부채 38조 돌파, 2달만에 1조 증가



▲ 미국의 국가 부채가 두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 38조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연방정부 섯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8조 달러를 돌파했다. 22일 재무부가 발표한 최신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증가 속도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사상 가장 빠른 '1조 달러 단위 부채 증가'로 기록됐다. 불과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총국가부채는 37조 달러 수준이었다. 국가부채는 2024년 1월 34조 달러, 7월 35조 달러, 11월 36조 달러를 기록했으며,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8조 달러에 이르렀다.

펜실베이니아대학 펜윅튼예산모형의 켄트 스메터스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재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AP통신에 "부채가 장기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구매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국(GAO)은 정부 부채 증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등 차입 비용 증가,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로 인한 임금 정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 억제 정책이 효과를 내며 재정적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는 4,680억 달러로,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수요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8개월 동안 적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00억 달러 감소했다"며 "지출 감축과 세수 증가의 결과"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행정부는 강력한 경제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관세 수입 확대, 차입 비용 절감, 낭비·사기·부패 근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공동경제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국가부채가 초당 6만9,713,822달러씩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회장 겸 CEO 마이클 피터슨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미국은 이자비용으로 4조 달러를 썼지만, 향후 10년간은 14조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중국 수출 금지 맞서 호주와 희토류 협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앤서니 알버니지 호주 총리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앤서니 알버니지 호주 총리가 20일 백악관에서 '핵심 광물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호주의 희토류 광물 자원 채굴 및 정제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이 최근 자국산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자이에 맞선 대응 카드가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알버니지 총리는 양국이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는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새로운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문제로 우리를 흔들려 한다면, 나는 세 자릿수 관세로 맞설 수 있다"며 "그 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대응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고문 케빈 해셋은 "이번 호주 협정의 핵심은 리스크 축소에 있다"며 "호주는 세계 경제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 및 정제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엘렌 에른루스와 에드 밀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을 자국 또는 우방 내로 이전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완전한 자급자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 웨스트젯 "등받이 젖히려면 돈 내"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이 새롭게 개조한 항공기 좌석 중 일부에서 '등받이 젖히기' 기능을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웨스트젯은 ABC 뉴스에 "현재 전 좌석이 이코노미식으로 구성된 항공기 43대를 재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항공기들은 과산한 항공사로부터 인수한 기체들이다.

이번 개조는 지난달 처음 발표됐으며, 표준 이코노미식의 등받이 조절 기능을 없애고 고정형 등받이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웨스트젯은 이 개조가 보잉 737-8 맥스와 737-800 기종을 포함한 자사 협동체(narrow-body) 항공기 전체의 3분의 1 이하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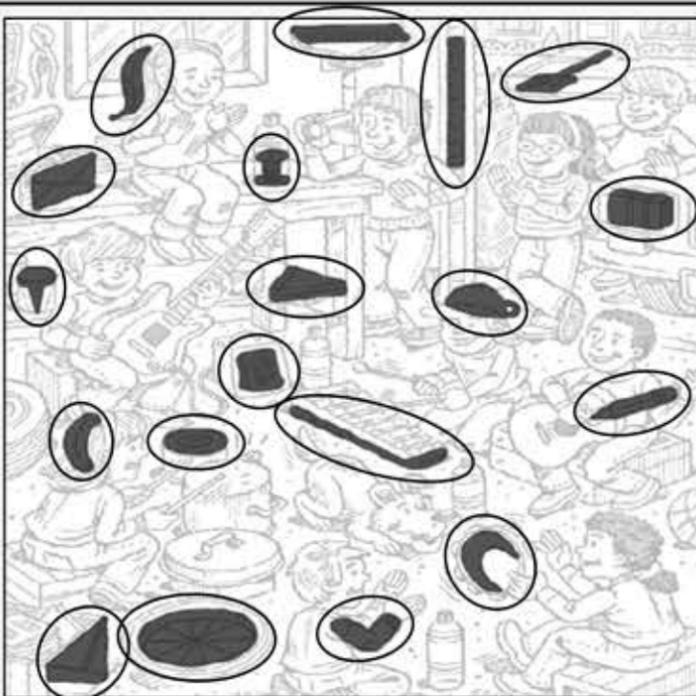
▲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이 항공기 좌석 중 일부에서 '등받이 젖히기' 기능을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shutterstock

웨스트젯 측은 "탑승객 사용 테스트 결과, 절반은 다른 승객이 좌석을 젖힐 때 공간이 침해받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고정형 등받이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등받이 조절 기능을 원한다면, 개조된 항공기의 '익스텐디드 컴포트'와 '프리미엄' 객실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웨스트젯은 현재 하와이 등 미국 19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새롭게 재구성된 첫 항공기는 이달 말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 42대는 내년 초까지 개조를 마칠 계획이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날말퍼즐 정답

	1	터		2	차	멀	3	미	
	4	걸	개	5	그	림		6	성
7	간	이		늘				년	
	호		8	잡		9	자	10	유
								자	11
12	사	13	고	무	친		민		고
							14	은	15
								발	품
16	조	망		17	양	수	겸	장	
									구
			18	태	권	도			